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윤미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Elderly among of Nursing student

Mi-Jin Yu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부양의식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7일 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 종교, 치매교육유무에서,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 치매봉사경험과 치매교육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에 대한 지식과 노인부양의식은($r=.105, p=0.38$),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r=.556,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맞춤형 치매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 간호대학생,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towards dementia and about awareness of elderly car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88 nursing students from K' university on May 7 to 14, 2019.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students acquired knowledge of dementia by grade and religion as pe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knowledge, attitude towards dementia and awareness of elderly car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erience of care and education about dementia.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of elderly care with knowledge ($r = .105, p = 038$)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r = .556, p = 000$). The students' attitude was explained about 31.3% in awareness of elderly care. As a findings, there is need to develop and apply a structured education program on dementia based on individual and group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lso,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continuous education and feedback.

Key Words : knowledge of dementia, attitude towards dementia, awareness of elderly care,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Mi-Jin Yun(angelymj@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7,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25,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빠르게 연장되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와 노령화 속도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전체인구의 22.5%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인구의 28.3%가 노인인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

증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치매노인 유병률은 2019년 현재 전체노인의 1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8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2]. 증가하는 치매노인으로 고통 받는 치매가족은 230만 명에 이르고 가족들은 치매관리비용으로 연간 2033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치매관리 사업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비용도 2020년에 8조 4970억, 2030년 16조 4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3].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개별적인 간호와 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과 동시에 모든 장기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장애를 포함한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인지기능 감소가 주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대상자별 치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면 치매노인이 발생되었을 때 초기대응의 부적절성으로 고도인지기능장애 및 가족붕괴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5]. 즉,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 가족 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가족들이 대 다수이다[6].

치매는 장기적인 간호가 요구되는 건강 문제로 간호제공자가 어떤 마음가짐 즉, 태도로 간호하느냐에 따라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예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지식과 태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방법과 서비스 질이 영향을 받으므로, 간호제공자가 치매환자의 여러 현실을 이해하고 간호할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8].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에서 주요한 주체로써 노인 부양

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게 될 대상이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일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대학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성인기에 지속되므로 대학생들이 치매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상황에서 치매를 가진 노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간호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치매노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미래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 치매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될 것이다. 태도는 행동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9].

대학생들은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집단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노인문제 대처방식과 함께 세대간 갈등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변화를 주기 위한 예방적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다행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태도를 더욱 지지해주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10]. 그리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료기관, 방문간호,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통합 재가서비스 등 각각의 간호현장에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인력[7]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을 높이는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의 지식경도와 태도를 알아보는 선행연구[11, 12, 13],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분석 연구[7],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의 비교 연구[14]들은 있으나, 향후 초고령 사회에서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 부양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15]라 볼 수 있고, 실제적인 노인부양행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부양의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사하고 노인부양의식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한 간호학과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15분이 소요됨을 설명 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288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치매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치매에 대한 지식 측정은 치매의 위험요인, 기능변화, 치료 및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현오(1999)[16]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기 하도록 되어있으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하여 0-16점의 전체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5$ 로 나타났다.

2.3.2 치매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치매에 대한 태도 측정은 정서적 태도 5문항, 행동적 태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0문항으로 조현오(1999)[16]가 개발한 도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조현오(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6$ 로 나타났다.

2.3.3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Turkman과 Lorgo(1953)의 노인부양의식 측정도구를 심은지(1998)[1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3영역 총 18문항으로 신체적 부양의식 6문항, 경제적 부양의식 6문항 및 정서적 부양의식 6문항이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노인부양의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심은지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검정은 Duncan으로 분석하였다.
-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년은 '2학년'이 36.8%, '3학년'이 19.1%, '4학년'이 44.1%를 차지하였으며, '종교유무'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28.8%, 없는 학생이 71.2%를 '치매가족 유무'에서는 치매가족이 있는 학생은 8%, 치매가족이 없는 학생은 92%를 차지하였으며, '치매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1%, 경험이 없는 학생은 38.9%를 차지하였다.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8%를 차지하였고, '인간발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93.4%를 '노인병동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3%, 없는 학생이 83.7%, 로 나타나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88)

Characteristic	Categories	Nursing student n(%)
Grade	2nd	106(36.8)
	3rd	55(19.1)
	4rd	127(44.1)

Religion	Yes	83(28.8)
	No	205(71.2)
Family history	Yes	23(8.0)
	No	265(92.0)
Service Experience for the dementia	Yes	176(61.1)
	No	112(38.9)
Education Experience	Yes	178(61.8)
	No	110(38.2)
Education Experience for Human development	Yes	269(93.4)
	No	19(6.6)
Clinical Practice with elder ward	Yes	47(16.3)
	No	241(83.7)

3.2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정답률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는 총 16점 만점에 평균 12.40±.45점(74.44%)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높은 항목은 '규칙적인 생활과 신체 정기검사는 치매예방에 도움을 준다' 로 95.8%, '치매는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로 95.1%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 로 29.5%,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 로 49.3%의 정답률로 나타나 Table 2와 같다.

Table 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bout dementia (N=288)

Item	N	%
Everyone suffers from dementia due to aging.	243	84.4%
Dementia is a disease condition	249	86.5%
Dementia is associated with genetic factors	208	72.2%
Dementia is associated with drinking alcohol	233	80.9%
Dementia is caused by group of diseases such as internal medical, neurological, psychological related diseases.	170	59.0%
Men are more prone to get dementia than women.	85	29.5%
The risk of affecting dementia related to age	189	65.6%
Dementia client can remember recent events better than the past events	242	84.0%
There is no sense of time and can't recognize people in and around, if affected by dementia.	267	92.7%
Even though affected by dementia, the client can do their favorite activities routinely	174	60.4%
Dementia couldn't detected in early stage.	274	95.1%
The effective way of preventing dementia	212	73.6%

are taking fresh and balanced diet.		
Proper life activities and regular physical exams are helps prevent dementia.	276	95.8%
Treatable dementia also there	142	49.3%
Dementia is cured by medication	226	78.5%
Changing the environment often, helpful for the elder with dementia.	240	83.3%
Total(M±SD)		12.40±.45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74.44%

3.3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7±.48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으로 측정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05±.54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신체적 부양영역이 4.24±.55로, 정서적 부양영역이 4.23±.64로, 경제적 부양영역이 3.50±.72의 순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Attitude, and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N=288)

Item	M±SD
Attitude	4.17±.48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4.05±.54
Financial supports	3.50±.72
Physical supports	4.24±.55
Emotional supports	4.23±.64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부양의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F=17.199, p=.000$), 종교유무($t=2.154, p=.032$), 치매교육경험($t=2.928, p=.0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0.79 ± 0.12)이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0.77 ± 0.11)과 치매교육경험이 있는 학생(0.76 ± 0.11)이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가족력, 치매봉사경험, 인간발달교육, 노인병동 실습유무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봉사경험($t=2.007, p=.046$), 치매교육경험($t=3.807,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치매봉사경험과 치매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4. Difference in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by genral characteristics(N=288)

Characteristic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Awareness of caregiving		
		M±SD	t/F	p(Duc an)	M±SD	t/F	p(Duc an)	M±SD	t/F	p(Duc an)
Grade	2nd	0.70±0.12a			4.21±0.48			4.10±0.48		
	3rd	0.72±0.09b	17.199	.000 (ab<c)	4.14±0.53	.526	.592	4.10±0.47	1.412	.245
	4rd	0.79±0.12c			4.16±0.50			3.99±0.54		
Religion	Yes	0.77±0.11			4.19±0.52			4.05±0.59		
	No	0.73±0.13	2.154	.032	4.17±0.49	.400	.689	4.05±0.51	.004	.997
Family history	Yes	0.70±0.12			4.18±0.56			3.97±0.50		
	No	0.74±0.12	-1.983	.053	4.17±0.49	.040	.968	4.06±0.50	-0.762	.447
Service Experience for the dementia	Yes	0.76±0.12			4.22±0.47	2.007	.046	4.12±0.52	2.667	.008
	No	0.73±0.13	1.899	.059	4.10±0.53			3.95±0.57		
Education Experienc	Yes	0.76±0.11			4.26±0.48	3.807	.000	4.13±0.58	2.90	.004
	No	0.72±0.13	2.928	.004	4.04±0.49			3.94±0.46		
Education Experience for Human development	Yes	0.74±0.12			4.17±0.47			4.05±0.55		
	No	0.74±0.11	-0.086	.932	4.17±0.80	.053	.958	4.03±0.51	.157	.876
Clinical Practice with elder ward	Yes	0.72±0.13			4.20±0.47			4.09±0.51		
	No	0.75±0.12	-1.681	.094	4.17±0.50	.482	.630	4.05±0.55	.493	.62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은 치매 노인봉사 경험($t=2.667, p=.008$), 치매교육경험($t=2.90, p=.0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노인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4.12 ± 0.52)과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4.13 ± 0.58)이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4와 같다.

3.5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간의 상관성은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r=.556,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치매에 대한 지식과 노인부양의식($r=.105, p=.03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Awareness of caregiving

Awareness of caregiving	Knowledge	Attitude
	r(p)	r(p)
	.105(=.038)	.556(=.000)

3.6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가 노인부양의식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독립변수로, 노인부양의식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801~0.973, 0.898~0.946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 1.026~1.246, 1.074~1.154의 2 이하로 낮게 나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Knowledge and Attitude for Awareness of caregiving

Variables	β	t	p	F	R ²
Attitude	.602	11.185	0.000	64.838	.313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사하고 노인부양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정답률은 74.44% (16점 만점에 12.40점)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말숙[7]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의 52.8%(30점 만점에 15.86), 조상희[13]의 치매파트너 간호학생대상 연구에서 65.13%(15점 만점에 9.77)로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문규[17]연구 42.5%(25점 만점에 1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지[18]의 연구에서 84%(12점 만점에 10.08)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 지식 도구의 상이함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확연하게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차이가 있었고, 실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치매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인간발달 교육이 정규교과정내에 편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의주기, 노화, 치매에 대한 지식 등을 습득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지[18]의 연구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의 치매 환자 경험이 100%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실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과 치매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한 전문화된 교육전달이 치매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평균평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4.1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말숙[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4점 만점에 3.01점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지[18]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3.01로 나타나 약간 높은 결과(5점 환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문규[19]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서 3.08,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봉욱[20]의 연구결과 5점 만점에 3.63으로 본 연구결과가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간호대학생, 일반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정도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학과 학생들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과정을 통해 치매와 정상노화과정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치매봉사 및 시설기관에서 다양하게 학습, 공감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는데, 우향희[15]의 보건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3.98점,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문규[19]의 연구에서 평균점수는 3.68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보건특성화 고등학생, 일반대학생 순으로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보건특성화 고등학생, 일반대학생 순으로 인간 케어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을 받아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치매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Scerri[21]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치매교육경험이 있을수록 간호지식이 많아지고 임상실습환경에 노출되면서 치매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결과는 우향희[15]의 보건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봉사경험, 치매교육경험이 있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Scerri[21]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치매 교육경험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치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육전달이 필요함[15]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부양의식은 치매봉사경험, 치매교육경험이 있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승아[22]의 대학생들의 봉사경험이 많을수록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양이기[23]의 노인관련교과목 수강경험이 많을수록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에 긍정적 노인부양의식을 위해 치매와 관련된 교육적, 임상적 환경노출이 필요함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노인부양의식($r=.105, p=.03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고,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r=.556,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조현오[16]연구와 황은혜[24]연구와 일치한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에 간호학과 교과과정 개발단계에서 노인간호관련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지식을 함양하고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을 높일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

며, 이는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이 높았다는 이위환[2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을 높이기 위해 치매노인의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학내 프로그램을 확립해 나가는 것과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사하고 노인부양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는 평균 12.40점, 치매에 대한 태도는 평균 4.17점, 노인부양의식은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 종교유무, 치매교육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 치매봉사경험, 치매교육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를 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부양의식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맞춤형 치매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대학교를 임의선정을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방법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8).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68815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http://m.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fare/news/news/retireveExpertDetail.do?srchListType=&dataSid=6622821&iTmp=>
- [3]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8). <https://www.nid.or.kr/search/search.aspx?search=%EB%B9%84%EC%9A%A9&x=0&y=0>
- [4] J. A. Song, Y. K. Jim & H. J. Kim(2012). Educational Needs on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among Certified Nursing Caregivers in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4(3) 220-232
- [5] M. S. Lee, M. C. Kim & S. K. Kim(2014). Study 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2), 21-29.
- [6] B. Keenan, C. Jenkins & L. Ginesi(2016). Preventing and diagnosing dementia. *Nursing Times*, 112(26), 22-25.
- [7] M. S. Kwon & J. H. Lee. (2017).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77-85.
- [8] Y. J. Jang.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Attitude Toward Dementia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Care Workers Who Work in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4(2), 333-348.
- [9] S. H. Kim, O. H. An & D. H. Park. (2015). Nursing students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3), 111-117.
- [10] I. S. Lee. (2000). Perception of Rural Area College Students on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2), 333-348.
- [11] M. S. Lee, M. C. Kim & S. K. Kim. (2014). Study 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2), 21-29.
- [12] B. I. Kwon. (2008).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with dementia in Chung Cheong Buk-Do.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13] S. H. Jo & E. H. Kim.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Dementia Partner Nursing Students on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317-323.
- [14] J. Y. Cho. (2016).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to toward Dementia in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257-265.
- [15] H. H. W. (2017).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supporting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the elderly among students of high School specialized in health.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6] H. O. Cho. (1999). *A Study on Public'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7] E. J. Sim. (1998). A Positve study on the difference of consciousness od supporting elders among generation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8] S. J. Lee. (2017). *Relationships Among Knoe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Burden of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9] M. G. Park. (2007). *Effect of Women's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ies on Consciousness about about Supporting the Ag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20] B. Y. Oh. (2016). A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influenced factors on dementia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5(1), 111-127.
- [21] A. Scerri & C. Scerri. (2013).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 questionnair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33(9), 962-968.
- [22] S. A. Choi, J. H. Cheong & S. J. Jin. (2009). The Effects of Voluntary Activities Attitude and Contentment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Elderly on Awareness of Supporting,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 Toward the Elder.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6, 239-261.
- [23] Y. K. Yang. (2013).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498-507.
- [24] E. H. Hwang, B. K. Kim, H & K. Kim. (2013). A Study on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6(2), 133-140.
- [25] W. H. Lee & Y. S. Kwon.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and Awareness of the Elderly on Supporting the Aged.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4(2), 165-178.

윤 미 진(Mi-Jin Yun)

【경력】



- 2010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과 박사)
- 2015년 ~ 현재 : 가야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생명윤리, 리더십, 간호교육, 지역사회
- E-Mail : angelymj@hanmail.net